

광주에 위기청소년 돌볼 '대안가정' 만든다

가정법원, 시·교육청 등과 회복센터 설치 추진

"처벌만이 능사 아냐"...사회가 감싸안아 재범 방지

#. 친구들을 폭행해 법정에 선 15살 A양에 대해 법원은 '사법형 그룹홈'에서 지내도록 처분을 내렸다. 부모가 이혼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어서, 가정에서는 A양을 돌봐줄 수 없기에 내린 결정이었다. A양은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그룹홈에서 같은 처분을 받은 청소년 7명과 함께 지냈다. 피아노도 배우고 개입도 하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여느 청소년과 다를게 없다. 사법형 그룹홈과 같은 청소년회복센터가 광주에도 마련된다.

8일 광주가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광주시·교육청·청소년단체 등과 위기청소년 지원협의체를 구성, 청소년회복센터 설치를 논의 중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됐거나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거나 받도록 예정된 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시설이다. 일종의 공동생활가정, 대안가정, 사법형 그룹홈 개념이다.

이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청소년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재비행을 막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 중에는 결손가정 및 저소득가정의 소년들이 많다. 이들은 재비행률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들을 무턱대고 소년원에 보낼 수 없다. 그렇다고 그냥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가정이 없거나 가정이 있더라도 돌보기 어려운 경우,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이들을 보호한다면 재비행을 막을 수 있다 것이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2011~2012년 소년법의 1년내 재비행률은 평균 44.1%였다. 결손가정 소년법 재비행률이 53.9%로 비

결손가정 34.7%보다 19.2%포인트나 높다. 그러나 사법형 그룹홈을 거친 소년법의 1년내 재비행률은 30%대로 떨어졌다. 광주가정법원은 범죄예방 효과에 주목했다. 특히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돼 청소년회복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원은 광주시·교육청 등과 함께 협의해 부산의 '사법형 그룹홈'을 모델로 하는 청소년회복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설 설립에 필요한 자원은 롯데쇼핑(주) 광주 윌드클럽 불법 재입대 환원금(130억원·매년 13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환원금 130억원은 롯데쇼핑이 2007년부터 롯데마트 광주윌드클럽점을 운영하면서 광주시 소유 체육부지인 윌드컵 경기장 일부 공간을 무단 재입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에 기부기로 한 액수다. 장재운 광주가정법원장은 "청소년이 죄를 지었을 때 엄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청소년에게 가정을 회복시켜주거나 가정과 유사한 공동체를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보호소년들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매월 8일은 가정폭력 예방의 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8일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와 여성긴급전화1366광주센터, 북부경찰서 직원 등 100여명이 '보라데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4년 8월 8일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유통 금지 추진

AI 발생농장 21곳으로 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닭,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도축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산 채로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규모 도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도매장은 가축 중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내달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도매장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내년에 3개소를 설치해 시범 사업을 할 방침이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도매닭 4300만 마리 가운데 살아있는 닭의 유통 물량은 35%에 해당하는 1500만 마리 정도다. 닭(오리 포함)은 소·돼지처럼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되어야 하나,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해 판매(자가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보니 전통시장에 다수의 가축거래상이 활동하면서 소

규모로 살아있는 닭이 거래기록 없이 유통되고, 일부 업소에서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판매돼 국민 건강과 AI 방역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실제 이번엔 다시 발생한 AI 사태는 전북 군산의 종계농장이 'AI 오골계' 3600마리를 유통하면서 시작됐다. 군산 종계농장에서 닭을 사지 않은 농가는 전통시장을 거쳐 교차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 현재 부산 기장군(1농장), 전북 전주(1농장), 임실군(1농장) 등 3개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양성판정을 받은 발생농장은 총 21곳으로 늘었다. /연형뉴스

광주서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

9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전국 가정법원장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에는 서울·부산·대구·대전·인천 등지의 가정법원장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성별별 서울가정법원장은 '보호소년대상 후생 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이어 장재운 광주가정법원장이 전국 가정법원장 두 번째로 문을 연 '법정교섭센터(동심)'의 설치 과정과 운영'에 대해 소개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영화 '임 행진곡' 광주촬영 마쳐

5·18민주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박기복 감독)이 최근 영혼결혼식과 5·18국립묘지 헌화 장면을 끝으로 촬영을 마쳤다. 영화는 22년간의 기획 준비 기간을 거쳤으며 촬영에만 1년이 걸렸다. 박기복 감독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감시와 방해를 극복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마침표를 찍고 후반 작업을 거쳐 10월 즈음 전국 개봉을 앞두고 됐다"고 밝혔다. 영화는 전국 3000여명의 국민 성금과 후원으로 제작됐다. 원래 예산은 45억여 원으로 책정했지만 스토리펀딩을 비롯해 개인 투자, 후원, 스태프와 배우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제작비를 크게 낮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22, 해진 19:46, 달질 05:11

미세먼지 주의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17/29	보성	13/28
목포	17/25	순천	16/29
여수	18/28	영광	15/27
나주	14/27	진도	15/27
완도	17/27	전주	16/28
구례	12/30	군산	16/25
강진	15/27	남원	13/29
해남	13/27	홍산도	16/24
장성	14/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시해	남해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남부	남부	남~남서	0.5	남서~서	0.5~1.0
남부	남부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남부	남부	남서~서	0.5	남서~서	0.5
남부	남부	남서~서	0.5~1.0	남서~서	0.5~1.5
남부	남부	남서~서	0.5~1.5	남서~서	0.5~1.5

◇생물지수

- 식중독 주의
- 높음
- 자외선
- 한때나쁨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7:30	02:14
	19:25	14:05
여수		
	02:57	08:48
	14:16	21:27

◇주간 날씨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16(금)
17/26	20/29	19/29	19/27	18/29	17/29	17/29

학생들이 추모하는 '세월호 3주기'

광주교육청 추모집 발간...글·그림·기억행사 등 담아



광주 학생들의 '세월호 3주기' 추모 자료집이 나왔다. 책은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광주 초·중·고교생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자발적 노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담긴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이 발간한 '봄, 다시 봄, 그리고 봄!'이라는 추모집은 세월호 추모 기간(3월 27일~4월 30일) 제해진원으로 책정했지만 스토리펀딩을 비롯해 개인 투자, 후원, 스태프와 배우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제작비를 크게 낮췄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봉산중 학생들의 학교 천장에 노란 종이 배를 매다는 추모행사, 산정중에 세워진 학생들이 만든 세월호 추모 조형물, 세월호 추모 그림 전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 추모를 기억하려는 학생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교육청은 "'봄'이라는 계절명은 '보'의 명사형에서 나왔다"면서 "침몰 참사 이후 세번째 봄을 맞으며 그리운 분들을 모두 다시 보기를 소망하는 학생들의 기원을 엿다"고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Hanwha Q CELLS 한화큐셀

시중가 600~650만원 월 4만7천원부터

농협 업무제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마세요!

경사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한가온에너지 전국 A/S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